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頁
株式會社朝鮮日報社

社說 伊에戰爭의 第二階段

에國瓦解와隣邦同盟政策

一

伊에戰爭도 어언 一旬을 지나서 第二階段에 드러간 感이 잇다。第二階段이라함은 武力으로써 示威를하야 에國을 降伏케할政策을 第一階段이라 함에 對하야 外交的으로 內亂을 煽動하고 隣邦諸國을 自家同盟側으로 끌어너흐려는 政策이다。戰爭開始前에도 이미 豫測햇든바와가티 伊太利의 對에戰略은 먼저 空中爆擊으로써 에國人心을 蒼皇하게하야 降伏케하고 그것이 如意치 못하면 第二階段으로 各地方에 散在해잇는 酋長들을 誘拐하야 內亂을 이르키고 그리고도 猶不足하면 第三階段으로 武力으로 에國首都를 占領하는것이다。過去 十餘日間 伊太利는 에國에 對하야 아도와를 爆擊하고 악숨、아디그라드를 占領하야 一擧에 全國을 占領할듯한 氣勢를 보엿스나 마침내 에國의 降伏을 밧지못하얏기때문에 莫不得已 第二階段으로서 各酋長의 分離獨立을 꾀하지 안흘수업게되엇다。降將 그구사를 擁立하야 티그레王朝를 復活한다는 報道및 各酋長의 投降說은 這間의 消息을 말하는것이 아니랴。

二

對에戰爭에 關한限 에國이 敗北하리라는것은 吾人의 이미 本欄에서 說破한바다。제아모리 天險의 利가 잇다 할지라도 伊太利의 近代化한 精鋭한 武器와 戰術 아페는 견딜바 아니다。그러나 에國은 設使 軍事的으로 不利한 立場에 잇다할지라도 外交的으로 政治的으로 有利한 立場에 잇다。聯盟의 對伊制裁規定의 發動은 무엇보다도 伊太利에 精神的 打擊을주엇슬것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武器禁輸、通商上、金融上의 보이코트는 短時日안에는 모르지만 一個月、二個月 지나는 동안에는 莫大한 壓迫이 될것은 想像키 不難하다。그러니 마치 에國의 對伊士氣는 恒常 充滿한 가운데 지낼지오、設使 武力的으로 一個月에 征服될것도 二個月、乃至 三個月을 버틸 自信力과 勇氣를 가지게 되는것이다。에國의 諸都市가 不過幾日에 陷落될것이 보이다가도 아즉까지 全部 陷落되지안코、아디그라드를 奪回햇느니、아도와를 夜襲하야 伊兵二千五百을 屠殺햇느니 하는것은 這間의 消息을 말한다 안흘수 업다。이리하야 伊에戰爭은 持久戰에 드러가다 하겟다。

三

伊에戰爭이 持久化한다는것은 伊太利에 不利한것은 말할것도 업다。첫재 强大國家요 文明國家요 野蠻國이라 賤視하는 에國을 即時 屈服케 못한다는것이 大伊太利에 威信에 關한問題요、둘재 持久戰이 되면 武器、食糧、其他에 財政的 疲幣를 招來할것이오、셋재는 英國을 비롯한 聯盟諸國의 經濟的制裁의 効果가 날로 顯著하게 나타나 畢竟 外交的으로 列國에 屈服치 아니치못하게될 憂慮가 잇기때문이다。自然 이 內的威信과 財政經濟를 解決하고 外로 援助者를 救하라면、에國을 分裂케 하는 方法과 隣邦諸國의 降服을 畫策에 引導하는것이 必要하다。이리하야 伊太利는 駐에公使의 追放을 바드면서도 限死로 머

그러므로 伊太利는 內亂을 피하고、外援을 알바니아、墺太利、西班牙、獨逸에 秋波를 보내어 援助乃至 同盟者되기를 運動하는것이다。

四

그러나 冷靜하면 伊太利는 實로 重大한 危機에 섯다 안흘수업다。設使 伊太利가 企圖하는바와가티 에國이 分裂되야 여러酋長이 獨立하고 에國을 征服하얏다 하자。그러나 이 武力으로써 倂合된 領土나 武力으로 降服된 酋長各國이 永就할가는 疑問이다。그뿐아니라 에國에는 英佛의 利權이 存在한바 武力的으로 全에國을占領하면 英佛 적어도 英國의 默認할바 아니다。그뿐아니라 伊太利가 에國을 占領한다자 그것만으로는 效果가 업고 이곳에 投資를 하야 治安의 維持 產業의 開發을 해야할지니 이러하라면 莫大한 財政이 必要한지라。戰爭後 財政上 疲弊를 挽回하는 伊太利에 이만한 消化力이 잇슬가는 疑問이다。거다가 列國의 經濟的 壓迫은 加重할지니、戰後의 伊太利는 經濟上 外交上 乃至 政治上 莫大한 打擊을 바들지오、甚하면 伊太利 沈淪의 運命에도 關하게될것이 아닐가생각된다。

伊空軍의爆擊으로 에國人死傷一萬

毒瓦斯彈其他三百五十個爆彈投下

다모트市民全部慘死

南오가덴戰線

【지부티十三日發聯合】그라차니將軍 麾下의 伊太利南軍은 優勢한 伊太利空軍의 掩護下에 하랄을 指目하고 遂次 前進을 繼續하고 잇는데 에디오피아 當局이 主張하는바에 依하면 伊太利空軍은 자못 毒瓦斯彈 其他를 投下하기 때문에 損害가 甚大하다고 한다 英領소말릴란드國境 왈왈東北方 다모트市에서는 伊太利空軍의 爆擊에 遭遇되여 非戰鬪員 市民은 全部慘死를 遂하엿다고한다 에디오피아軍의 情報에依하면 伊太利空軍은 最近 오가덴州 各地에 亘하야 毒瓦斯彈 其他 三百五十個의 爆彈을 投下하엿는데 에디오피아人의 死傷은 적어도 一萬이라고 傳한다

日中工作進捗中 蔣氏約束違反

現地軍部事態重大視

【北平十四日發電通】陝西省北部의 共產軍討伐에 關하야 蔣介石氏는 閻錫山에 對하야 現在 山西軍 王靖國氏의 二個師外다시兵力增援을 要求한데 對하야 閻錫山氏는 山西省內의 兵備가 薄弱해젓슴으로 將來增遣을 것바하지안코 省境防備를 굿게할 方針을 堅持하고잇는데 蔣介石氏는 閻錫山氏의 消極的態度를 口實로하야 甘肅陝西의 共產軍을 漸次山西省境에 내몰리는 形勢가 濃厚하게되엿다 이에對하야 日本으로서는 北中工作으로서 察哈爾、綏遠、山西省內의 國民黨部를 解消케하고 排日的分子의 一掃를 企圖하고잇는際 蔣介石氏가 如斯한 意圖下에 山西側에 作用하게되면 斷然默視할수업다고하야 現在軍部는 極히 强硬態度로서 推移를 重視하고잇다

駐蘇日本大使館 越境事件否定

【莫斯科十三日發電通】蘇滿國境越境事件에 對하야 蘇聯側抗議에 日本大使館에서는 이 有事件은 이것이 原因이 되어서 日蘇間에 戰鬪行爲를 惹起할과 如한 것이라고할수업다 라고 述하고 또 日本大使館에서 日滿兵이 蘇聯警備隊를 砲擊한것을 否定하고잇다는 旨를 强調하고 蘇聯側의 發表가 誤謬인것을 指摘하엿다

國境線確定必要를 廣田外相主張!

◇蘇大使의滿蘇國境衝突事件抗議와 委員會案再提示에對해

【東京電話聯合】綏芬河西方의滿蘇兩國警備隊의 衝突事件에 對하야 蘇聯側은 十二日附公文으로써 抗議를 提出하야

一、事實調査
一、犯人處罰

을 要求하여왓는데 駐日蘇聯大使 유레니에프氏는 다시十四日午前十時半 外務省에 廣田外相을訪問하고 八日新紛爭에 關하야 公文으로써 抗議하는同時에 그對策으로 日滿中三國國境委員會의 組織을 提案하엿다 유레니에프大使의 抗議內容은 前回의主張을 反覆하야 八日、十二日兩回에 亘하야 發生한 新紛爭에對하여는 蘇聯側의調査에依하면 問題는 滿洲國側警備兵의 國境侵入犯으로 發生되것이다 라고 嚴重抗議한後 如斯한 紛爭問題의 歸屬을明白히하기爲하야 일속 蘇聯側이 提案한 三國國境委員會를 組織하자고 提議한것이다 이에對하야 廣田外相은 滿蘇兵의 衝突事實에 對하여는 新聞紙에依하야 알엇스나 眞相은 判明되지안흠으로 滿洲國側에 問議하야 事實을 明白히하겟다 蘇聯側의 國境委員會案은 滿洲國側으로 移牒하야 그意見을 聽取한後에 回答하겟다 그리고 如斯한 紛爭이 發生하는것은 畢竟 國境線의 不確定으로 因하야 發生하는것임으로 紛爭解決을爲하야 右國境線을 確立할 必要가잇다고 國境線의 確定을 主張한바 蘇聯側도 考慮를約하고正午에會見을終了하엿다(寫眞은廣田外相)

蘇聯兵不法射擊으로 日本軍戰死六名

關東軍에서眞相發表

【新京十四日發電通】關東軍에서는 今回滿蘇國境에서 蘇滿紛爭事件에 對하야 十四日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十月一日 滿蘇兵衝突事件에 作하야 善後處理에 萬綏遺憾업기를 期待하기 爲하야 現實를再調查할 目的으로 派遣된 調查隊(綏芬河警備隊松本伍長外八名)은 衝突事件에 關係잇는滿洲國軍將校二名及 援護隊三十名을 帶同하고 十月十二日午後三時頃 綏芬河北方約二十粁의 事件發生地에 이르러地上에 標識設置中 約五十名의 蘇聯兵이 突然 無警告로 猛烈한 射擊을 加하야 我調查隊도 不得已이에 應戰하엿다 이戰鬪에잇서 日本側의 損害는 戰死六名 負傷者五名으로 綏芬河守備隊 中村大尉를 現地에急派하야 狀況을 偵察中이다

伊에戰況抄 (十月十四日)

◇伊太利遠征軍總司令데·보노將軍은 十二日 아스마라에서 아도와에 入城하야 十三日正式으로 아도와의 伊太利領土로서의 合倂을宣言

◇에軍의猛將 그구사將軍手兵千五百 其他無恐를 가지고 伊太利軍에 投降하얏다고 伊政府에서發表、同時에 그구사將軍을 擁立하야 過去에 沒落한 데그레王朝의 復活을運動

◇伊軍악숨을 完全占領

◇南部오가덴戰線은 伊軍의空襲으로 에디오피아側의 非戰鬪員萬餘名이 慘死하얏다고 에國政府에서 公表

今後數週間以內에 軍縮本會議開催?

一九三五年中會議召集한다는 條約義務履行의形式上

【東京電話聯合】華盛頓方面의情報에 依하면 英米兩國에서는 數週間中에 倫敦에서 軍縮本會議를 開催하기로 方針을 決定하엿다는 情報를 傳하는데 外務省에서는 右에 關하야 아모런 情報에 接치안헛다 그러나 今週中(아마十八日)에 發表되리라고 豫想되는 對英米回答은 從來의 方針에 實質的인 變化는 업고 依然 英米의 主張과 全面的對立을 示한것이므로 英國政府는 右回答에 依하야 會議를 開催하더라도 所用이 업다는것을 覺悟할것이다 따라서 英國政府가 軍縮會議의 招請國인 責任上 年內에 會議를 招集하는일이 잇더라도 이는(一九三五年中에 會議를 招集치 안흐면안된다) 華府條約에 規定된 義務를 履行하는 形式的인 會議에 不過하고 軍縮問題의 實質的解決은 何等 期待되지 안흘터 그리고 如斯한 形式的인 會議가 열릴境遇에 日本으로서도 一旦 代表를 보낼 必要가 잇스므로 日本은 十二月中旬頃의 開會를 主張할모양인데 그境遇의 代表로는 아마 豫備會議에 出席한 山本五十六中將이 選任될것이다

一事一言

戰爭과人間性(三)

長白山人

現代처럼 人間性이 蔑視되는 時代는 드물것이다。웨 그런고 하면 사람은 理論的 動物처럼 생각하는 이가 만흠으로。理論은 自然과 人生을 說明하는데 쓰이는 道具요 아직 人生의 行路를 規定하는 道具가 되는 時機에는 達치못하엿다。큰 修練이 잇슨 偶人이나、큰 修練 오랜 修練을 처른 뒤엣 人類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人類의行爲 그中에도 巨大한 行爲를 決定하는것은 感情이다。家庭內의不和가 거의 全部 非合理的인感情關係인것 가티 社會의 不和 더군다나 國際的不和는 理論보다도 感情이 原因이 된다。이것을 흔히 利害의 衝突이라고 하는것은 有理한 말이지마는、利害問題가 가장 人類의 感情激發의 誘因이 되는것 이지마는 그 利害를 다만 物質的인것으로 보아서는 크게 人性을 誤解하는 結果를 生한다。웨그런고 하면 人類는 名譽나 矜持이나 愛欲을 物質的利害以上으로 보는 境遇가 만흔 까닭이다。

그럼으로 만일 個人的으로 人類의 不和의 原因을 除去하려 한다 하면 그것은 憎愛의 感情을 除去함에 잇스려니와 政治者로서 人民을 滿足케 하려면 다만 衣食만으로 되는것 이아니오 그人民의 腦中에 잇는 感情、그中에도 그時代에 잇서서 가장 普遍的으로 멧가잇는 感情을 滿足케 하여야 이것을 못할 때에 모든 努力은 그 效果를 失하는것이오 民族對民族의 關係도 또한 그러한것이다。

戰爭의 最根本的이오 最後的 動力은 人類의 感情이다。사람마다 感情을 調節하지못하는 以上 警察制와 戰爭은 업서지지 아니할것이니 眼이시 새로 나오는 衆生은 眼이시 새 戰爭을 꾸며서 平和論者를 울게할 것이다。이 意味로 보아서 人類의 救濟는 永久的이다。平行線이란 無限에서 相交하는 線의 稱이다。(完)

經濟提携問題와 赤化防衛策協議

對中新具體方策을決定하고

大連武官會議終了!

【大連十四日發電通】大連會議第二日은 十四日午前九時부터 開會하야 對中具體策에 關하야 兩村、多田、磯谷、板垣西將軍의 間에 最後的 協議가 進行되여 排日運動의 根絶方針 北中에서의經濟提携의 具體化、新滿、察哈爾方面의 赤化防衛 其他諸問題를 檢討하야 이의 實行에關한 現地軍部의 意見을 綜合하야 中央과 現地의 連絡方針等에 對하야 詳細決定을 보와 玆에 注目을 끌든 大連武官會議는 對支政策의 新具體的方策을 決定하고 終了하얏다 即南京政府의 對日二重政策과 對日貨運動의 策動이 依然存在라는 限 日支親善提携는 緣木求魚와갓다 故로 이가튼二重外交의排日運動의 絶滅을 期하는同時에 滿洲事件을 비롯하야 北支關係其他諸懸案의 解決을 圖하는 一面 輿論의 推取로부터 敎動하야 安住樂業을 주어 日滿支間의 完全한 諒解와 提携下에 支那文化向上과 繁榮을 指導하야 日滿支三國의 共存共榮의 實을擧하야서 東洋永遠의 平和와繁榮을 確保하자는 大理想의 實現을 期하기로 되엿다

"北中獨立政權"의 樹立이目標

大連武官會議의結果

【大連十四日發電通】大連會議의 重點은 北中問題를 中心으로檢討된것은 必然으로 北中現狀은 過去二個年間 北中民衆의 福利增進을 目標로多大한 努力을하여왓슴에 不拘하고 依然排日團體가 潛在하야 何等改善되는바업고 南京政府의對中面에 蹂躙하는 南京政府의 對日二重政策은 每事에 暴露되야 北中經濟開發機關으로 設立된 北經濟協會는 되리혀 南京政府浙江財閥의 私腹 채우는 結果를 招來하고 現情으로는 日中經濟提携는 絶對不可能한 情勢에잇다 그리고 이局面打開는 蔣介石氏 獨裁下에잇는 南京政府及國民黨의 制裁를 안밧는 獨立政權을 北中에 樹立하는것이 刻下의 急務임은 北中民衆及其眼者의 痛感하는바임으로 今回의 會議에서는 이新情勢에 處할 軍側의步調를마쳐 中央現地의 連絡을鞏固히할 具體的方策이 議論된模樣이다

共產軍情勢如何론 軍事行動不辭

【大連十四日發聯合】大連會議의結果 對支現狀으로보아 軍이 가장現在重視할것은 蔣介石氏가 觸遂工作中의 共產軍이 河北에 侵入形勢인것인데 이에 對하야는 적어도 共產軍이 山西에 侵入하면 斷乎한處置에 나가지 안흐면 안된다 要컨대 對支全面工作은 自動的으로는 何等發動치안흐나 他動的 情勢變化에 直面하면 언제든지 即時軍事行動을開始할方針을 決定하얏다

蔣、閻會見結果 意見完全一致

【上海十四日發聯合】蔣介石氏는 十三日午前十一時 飛行機로 開封에서 太原에 到着하야 綏靖公署에서 閻錫山氏와 會見하얏다 席上 蔣介石氏는 西北共產軍에 對한 共同防備案、第五次全國代表大會事前工作及北中國에서의 日中兩國關係等에對하야 說明하고 閻錫山氏의 協力을 求하엿다 此等重要議案에 對하야 蔣閻兩首腦의 意見은 完全히 一致하얏다고 解釋되고잇다

梨本宮殿下의 消防組御巡閱式

朝鮮消防協會에서는 十五日午後二時에 總督府東側廣場에서 梨本宮殿下의 御台臨을 仰하야 全朝鮮消防組의 御觀閱式을 擧行하게되엇다

國體明徵再聲明問題 政府、軍部正面對立

兩方다一步도不讓하야再聲明未決定

現內閣重大危機直面

【東京電話電通】國體明徵에 關한 再聲明問題에對하야 政府는 十一日 閣議에서 그根本方針을 決定하엿슴에도 不拘하고 그後의 案文에 對하야 政府側과 陸軍當局間에 意見이 全然對立되여 數次의 折衝도 徒勞에歸하야 十四日까지도 그解決은 마침내 不可能하게 되엿슴으로 政府는 十五日閣議前 岡田首相과 川島大角兩軍部閣僚와의 會見으로 政治的接近에 最善의 努力을 하기로되엿는데 問題는 表面上單純한 字句用語가 아니라 그影響하는바는 政治的으로 보아極히 重大한바 政府軍部와함께 一步도 讓步하지안코 强硬態度를取하고잇슴으로 閣議前의 折衝에잇서 圓滿한解決에 到達키는 자못困難한듯하다 結局政府는 再聲明案文에對하야 未決定대로 閣議에臨하게 될것이나 다시 政府로서의 最後的 態度를 決定할 確信업슴을 表明한것이라할 情勢로되엿다 그리고 岡田首相은 十五日閣議席上聲明文案의 根本義에關하야 再檢討의 必要를豫想하고잇는듯한바 이미十四日早朝白根書記官長으로부터 各閣僚에게 文書로서 各各政府의 聲明私案및 軍部側의 修正要求를 送附한바 잇섯는데、如斯히 軍部의 要求에對하야 首相이各閣僚의 意嚮을徵하려는 態度는 首相單獨으로는 그解決至難함을 表明한것이라할것으로 同日의閣議前의 軍部兩相및 後藤內務、小原司法、松田文部關係閣僚의 動向은 極히 注意되는바 政府가果然旣定方針대로 再聲明發表를 할수잇슬는지 업슬는지 岡田首相 및 此三閣僚의 決心如何에잇다 할것으로 政府는 이제 重大危機에 直面하고 政局은 依然波瀾이豫想되는 事態에까지 至하얏다 (寫眞은 岡田首相)

全朝鮮氏子總代 聯合會開催

全朝鮮氏子總代聯合會는 十四日午前十時부터 公會堂에서 開會하고 一同은 神宮、宮中、朝鮮內各社를 遙拜한後 勅語奉讀、政務總監의訓示、神職會長(牛島內務局長)의 祝辭、役員選擧、宣言案、會員建議案等을 附議하고 閉會한後 秋葉城大敎授의 講演에 옴겨 正午散會하엿다

今井田政務總監告辭

玆에 全朝鮮氏子總代聯合會를 開催함에 當하야 一言의 所懷를 陳述하게되는것은 欣快히녀이는바이다 敬神崇祖의 大道를 宣揚하야 國民精神의 振作更張을 圖하는것은 朝鮮에잇서서 그 必要가 切實한것을 깨닷고잇다 大正 倂合以來 産業으로、交通으로、經濟로 敎育으로 諸般文化的施設은 飛躍的進步를 遂하야 半島의 將來는 實로 洋洋한바가잇스나 그러나 因襲이 오랜心田開發에 이르러서는 物的方面에 及하지못한바가 잇다 이때문에 總督府에서는 客冬以來 所謂心田開發의 大綱을 揭揚하고 物心兩面의 倂進에 努力하고 잇는것은 各位가 이미 知悉하는바이다 近年에 本運動은 當局의 熱意에 繼續되여 敬神의 美風이 振興되고잇는것은 깁히 欣히 녁이는바이다 大蓋如斯한 運動은 斯土大衆의 心的生活의 是正向上을 目標로하나 이러한時運에 處하야 國體와 不可分의關係에잇고 國史의成遂과 깁흔緣由가잇서 共存共榮의 自律的精神涵養上에도 至大한 關係를가진 神社神祠의 興隆을 策하는 極히 機宜를 得한 것이다 總督府는 此에 鑑하야 目下 神社制度의 確立 社務의 整善等에 關하야 鋭意考究中이다 그러나 神社神祠는 共存立의 基礎를 氏子崇敬者우에 두고잇슴으로 그等의 代表者인 各位의 協力에 依存하는바가 極히 크다。各位는 깁히 時運의 推移에 鑑하야 神職을 補佐하야 널리 敬神崇祖의 信念을 宣揚하야 一面社殿의 整善에 留意하야 神社神祠로 하여금 眞正으로 國家의 宗祀가될 實을 擧하게하는 同時에 報恩謝德、共存共榮의 美俗을 培養하는 斯念의 慰藉으로하야 善良한 國民性의 涵養、地方民의 精神的融合에 資케하기를 切望하여마지안는바이다 一言所感을 陳述하야 告辭로한다

聖地「악숨」을 伊軍完全히占領

【아도와十四日發電通】아도와西方 服北部戰線의 伊太利軍은 西方 악숨의地에 對하야 漸次包圍陣形을 整備하고잇섯는데 十三日午後 드듸어同地는 伊太利軍의 손에도라왓다

人事·集會

▲崔卓氏(咸南保安課長) 十三日入京平田旅館投宿
▲張文華氏(定州郡守)入京中本社來訪
▲李璟柱氏(定州文廟直員)同上
▲李秉憲氏(定州芝島漁業組合長)同上
▲盧輔根氏(定州醫師)同上
▲桂燦謙氏(博川郡守)同上
▲金泰錫氏(咸南參與官)同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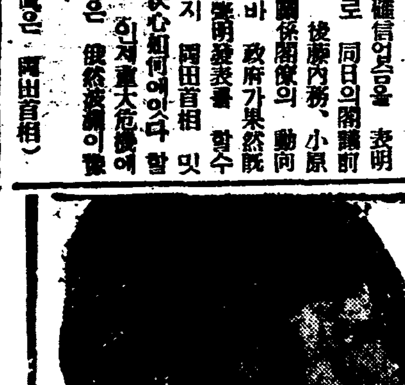
夕刊後市況 十四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九八六〇	(不變)
鐘新	一三七〇	(一〇高)
日產	八三五〇	(一〇高)
東新	一六一六〇	(不變)

◆橫濱 生系 後引◆ 當限九〇八〇〇 先限九〇八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八二〇 先限 七〇七〇



コドモのかぜに オイン

(아해들의감기열에) 家庭의常備藥

오인……은 幼兒에먹이기쉽고副作用업는理想的良劑

오인……은 가장安全하고少量으로도効果가만타

오인……은 感氣熱、發疹、肺炎、百日咳其他熱病에쓰시라。

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各藥店에잇슴

ヤトコニン (야도고닌)

結核 疾患注射劑 頸部淋巴腺結核 小兒腺病質疾患

專賣特許 京都帝國大學醫學部敎授 醫學博士 舟岡省五氏研究

本劑는 京大舟岡敎授의 組織治療理論에基한 結核性疾患 注射劑로서 果糖燐酸石灰로서되는 注射에依하야 結核病竈에 達하자 호스파타ー제 라고하는 酵素에依하야 分解되야 燐酸石灰를遊離시히며、漸次病組織을 淨化吸收식힘에 至하는것이다。

【用法】隔日皮下注射、約三十回로써 一治療期間을 삼는다。吸收容易하며 副作用이업다

(實驗報告集無代進呈)

(包裝) 小兒用 五管入 三十管入 大人用 五管入 三十管入

全國藥店에잇슴

發賣元 株式會社 鹽野義商店 京城黃金町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日本橋區本町

0.48(Y.I.)

ラキサトール錠 (라끼사도루)

便秘に

ラキサトール는無味、無臭가장 少量으로서도 特効잇스며、特히常習便秘者에쓰면習慣性이消去되며排便이가장自然스럽게됨으로써現在理想的下劑로써널니賞用되고잇다。

包裝 10錠 30錠 100錠
[illegible]

各藥店에잇슴

製造元 株式會社 鹽野義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東京日本橋區本町

無用한負擔强要하는 普校後援會解散論

支出方途조차無節制한狀態에잇다고

市內學父兄物論漸高

각보통학교의 후원회의 회비문제에대하야는 매년각도의 학무과장회의에서 문제가 될뿐아니라 총독부학무국에서도 각도에 엄달하야 학부형의 부담과중이 업게하는동시에 그회비 사용에대한 제한과 절제에대하야 잘못이업도록 주의를식혀 왓섯는데 최근에 이문제는다시 시내보통학교의 학부형간에 문제를 이르키어 후원회를 해산하라는 말까지나게되엿다 현재 시내각보통학교의 후원회비는 매학교변수입이 약삼천원에 달하는바 그징수방법은 처음에 입학할때에 십원내지십오원을받고 또이학년이상의 아동에게는 학년초에 이원을받는외에 전아동에게매월사금팔십전외에 이십전이라는회비를 밧고잇다 그런데 이회비의 용도를보면 매년운동회의경비 직원퇴직에대한 긔념품의 증정등의 경비로지출하는외에 운동회가끗나면 직원의위로회라하여가지고 후원회의 평의원과 교원들이 료리점에가서 이차회까지하야 한번에 입백사오십원돈을 소비한다고한다 그러나 입방후원회에는 삼천여원의년수입이잇스며또 료리집에가서 이차회까지에 일이백원의 요리를 사먹으면서 빈곤한 아동이 월사금을 못내면 교원은 아동의출석을 정지식힐뿐아니라 부형에서는 월사금 체납부형에게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거나 차압까지하면서 후원회의 재원의일부를 지출하야 빈곤아동의 월사금을 구조하여주자는 일부학부형의 주창에는 반대를하고잇스나 학부형들은 일부평의원과 교원의처사에 불만을품고 후원회의해산을 단행하야 이러한폐풍을업시하자고 주장하고잇는상태이다 따라서 학부형들은 후원회의폐지는 별문제로하고라도 우선 후원회의 확청과 이에대한 당국의 엄중한 감독이 잇기를 요망한다고한다

學務局도念慮 各道에團束嚴達

여러가지弊害를除去하기爲해 監督方針을講究中

전긔와가티 시비가만흔 보통학교의 후원회의 대책에대하야 학무국에서는 일즉부터 그폐해가 잇는점을 고려하야 각도에문서로 훈달(訓達)하거나 또는학무관계의회의가 잇슬때마다 주의를하여왓는데 다시이에 대하야는 자세한조사를 각도에 명하야 진상이 판명되는대로 학무국에서 후원회감독에대한 방침과 구체적내규에대하야 일정한 표준을정하여가지고 이것을 각도에엄달하야 도당국으로부터각군을통하야 엄중한감독을 할터이라한다 또약간의 근소한 금액을모아가지고 학교사업의 후원또한부형의 학교에대한 관심을깁게하며 학교와 가정의 련락을 긴밀히하게 후원회의 조직은 필요하지만 그수입의 증대(增大)만을 도모하야 무산계급의 학부형의 부담을 과중케대며 또는 그회비의 람용등에 의하야 강긔를 문란케하는 일이 잇다면 엄중한 단속을하게되엇다한다

大野學務課長 談

별항과가튼 보통학교의 후원회숙청문제에 대하야 총독부학무국대야(大野)학무과장은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일즉부터 그러한 시비가잇기에 지금까지도 각도에 엄달은하여 왓섯는데 아즉도 그러한 폐해가 잇다면 압흐로 더욱 감독을 엄중히 하게겟다 보통학교는 부군과 도에서제일차적 감독을 하게되어 잇는데 이에 대하야 학무국으로서는 도에 대하야 충분한지시를할작정이다』

二次會까지百餘圓 遊興費로如此濫用

有效하게쓰지못할것가트면 斷然解散함이可하다

某後援會幹部 談

전긔와가튼 보통학교의 후원회 회비람용 문제에 대하야 현재 인현(仁峴)보통학교 후원회평의원인 시내황금정 록정목 거주하는 모씨는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작년부터 후원회비 지출에무절제한바가 자조잇기때문에 나는 우리학교 평의원회에서 문제삼은 일이잇지만 일전에도 모보통학교에서 운동회가 끗난후에 시내중국요리점 봉내각(蓬萊閣)에서 팔십이원엇치의 유흥을 하고 다시 천향원(天香園)에서 이차회를 하야 한게입백오십여원이나 유흥소비하엿다니 학부형으로 부터 후원회비의 명목으로 모흔돈을 이러케 써서야되겟소 나는 그러기에 후원회의 변수입을 가지고 결식(欠食)아동에게 점심을 사주거나 또는 월사금 못내는 아동에게는후원회에서 내어준다든가 그런방면에 쓰기를주장하오 만일 그러치아느면 학부형의 부담을 경감하게하기위하야 후원회를 단연해산하는것이 조흘니다 이러한 실례는각학교에 만흡니다』

後援會加入與否도 父兄의自由이다

京城府藤江學務課長談

본래 후원회라는것은 학부형자체가 자긔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가다니는 학교의 부족한것을 힘밋치는데까지도읍자는목적으로 조직한것이오 결코 학교당국에서 그것을 만들게한것은 아니다 따라서 후원회비를 내이고 안내이는것은각자의 임의이고 후원회에 가입하고 안하는것까지도 절대자유이다 따라서 부당국이나 학교당국에서 후원회를 강제로못하고 간섭할수업는 성질의것이다 그러나 후원회라는것이 학교의 제한잇는경비로 완전한 시설을 못하게되는 경우가잇슬때 그것을 보조해가는것임으로 확실히 필요한것을 느낀다。 그리고 일상학교당국에 대해서 각학교 후원회의 수지보고를연도말에 한번식제출 시켜나려오는동시 학교당국에서 후원회에 대하여 무리가업도록 각금엄중한훈달을 하여오는터이다 모학교후원회에서 소위 면회비에백수십원이나 되는 불소한돈을필요업시 썻다는것은 자미업는일로 안다 따라서 압흐로는 주의식힐 작정이다 학부형이자녀를위하여 집거내놋는 돈을가지고 그것을 가장유익하고 필요한데쓰지안는다는것이 후원회비를 내이는본목적이상 그러케 무의미한데써바린다는것은 참말부당한일로안다

支出을節約하여 負擔輕減이可

昌信普校有川校長 談

우리학교의 후원회비는 달은곳에서 일시금으로 팔원이니 십원이니 밧는것전렴 그러케 밧는것이 아니라 매년 일원씩바게 아니밧습니다 그것도 팔백가정이라고하나 그중 가난한집에는 면제를 하여주고 한 오백명밧게는 아니밧습니다 그리고 후원회비의 비목에대해서는 우리학교와가티 일정한 예산목을 세워가지고 그에의해서 지출을 하게되다면 그러한 폐단은 업서질줄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후원회비를 업새어 바린다든가 또는 전연밧지아니한다든가하면 국가의보조가 더잇더지 수업료를 올린든지 해야할터이니까 그것은 근본제이고 다만 지금현상을 유지하자면 그동안 까지의비용을 절약하므로써 회비의액을 주리도록함이 조흘뜻합니다

南鮮學院長 十年勤續表彰

【寧邊】 평북령미 남미학원에서는 시월일일정오 동교정에서 리문욱(李文郁)씨사회로 추풍오추련한 김수장(金壽長)원장의 십여년을 무산아동을 위하야 노주변근속표창식을 거행하고 기념품도 진정하엿다는바 동일은 운동회를 겸하야 대성황을 일우웟다 고한다

日本最初의 女子辯理士

【東京電話通】 특허국(特許局)에서는 소화십년도 변리사(辯理士)시험을 추리고십사일에 합격자를 발표하엿다는데 오래동안 문제로되여잇든 일본최초의 녀자변리사가 나왓다그는 동경시 경교구목면정(東京市京橋區木挽町)삼정목 정상청자(井上淸子)(三…)녀사로 동녀사는고등소학교(高等小學校)를 졸업하얏슬뿐으로나 종에는전혀 독학을하야 드듸여 다수의 남성을헤치고 영관을어든 성공미담의 주인공이되엿다한다

電車衝突

십사일 오후구시오분시내남대문 전차교채점에서는 효자동(孝子洞)가는 전차입백이호와 경성역가는 전차입백삼십구호가『로인트』의 실수로충돌되야 상방에 상당한 파손을입어 입시호차을 이루엇는데 피해액은 략이백원에 달하리라한다

齒專對醫專蹴球戰에 競技中暴力行動

一時는不得已競技까지中止 昨日修羅場化한京城運動場

신성하여야할 경기장에서 또다시 불상사가 생기엇다 십삼일 오전열한시십오분부터 경성운동장에서 열린 조선신궁경기대회 전문부축구결승전에 경성치과의전(齒專)과 경성의전(醫專)의양교가대치하야 처음부터 경기가 서로난폭하야 불쾌한감을 주더니 필경은 개전십팔분에 량군의 일부선수들사이에 고의로서로차고 머리로박는등 실로전문학교학생인 선수답지못한 행동을 감행하야 이에흥분된 응원단까지 운동장에 뛰여드러 소래를 질르는등 명랑하여야할운동장이 수라장을 이루으자 본부위원들이 달려가 겨우진무하엿다 소위전문학생들로서『스포—츠맨쉽』을 존중히하여야할 경기장에서 이러한 불상사를이르킨것은 운동계에큰수치인동시에전문학생계에 큰불상사이다 그리고 이날중등이하 생도들도 다수 구경하고잇섯는데 이러한 란투극의 장면을 그들에게까지 보이게함은 후배들을 위하야서 크게반성하여야할일이라하야 일반은 학생선수 답지못한 그들의 추태를 다매하여마지안는다

減食處分에不滿 思想囚騷動惹起

定平農組事件被告三名이始作 多數囚人들이雷同

【咸興支局電話】 십이일 오전네시 함흥형무소(咸興刑務所)구내에서는 고요한새벽 공기를 깨트리고 만흔죄수들이 목음놉혀 소리를웨치며 감방의 마루청을 구르는등 일대 소동이 일어나 마침 단잠에 취하엿든 형무소부근 주민들이 놀래깨여 담밧 [illegible] 사건이 잇섯는데 이것이 계속하야 십삼일밤과 십사일 새벽에도 꼭가튼 소동이 일어낫섯다 그원인은 지난 십일일 오후일곱시 제일차 정평농조사건(定平農組事件)관계자 세명이 감방안에서 저녁밥을 밧고 상례의 정좌를 거절하엿다는 것으로 담당 [illegible] 식처분을 한일이잇섯는데 이에 분개한 그들세명이 십이일새벽에 소리를웨치며 마루창을 두르고 하는것을 다른죄수들이 그에호응하야 그와가튼 큰소동을 이르킨것이요 십삼일밤과 십사일새벽에도 계속하야 그와가티 소동을 한것이라한다

舊鍾路署廳舍 最近에競賣

鍾路거리의未決濟의建物 四半世紀歷史活證人

한합이래 경성시내에서 이러난 대소사건을 거진 들추어 내서그야말로 종로(鐘路)사반세기(四半世紀)동안의 말업는 증인으로서 시내종로 네거리의 넷날종로서 청사(鍾路署廳舍)는 소화사년에 종로서가 지금자리로이사해온후에는 체신국간이생명보험과에서쓰다가 최근에는 화신(和信)에서빌어쓰고 잇서서군도소리가 요란하든 집안에서는얌전한 녀점원의 목소리가 흐르더니 이옥고이집을 관활하고잇든 경성세무감독국(京城稅務監督局)에서는 이를 공매(公賣)에부처서 민간에불하 하기로 결정하엿다고한다 이리하야 그동안에 겪거온 대소사건의 흔적을때와함께 구석구석이 감추고잇는이종로의미결제(未決濟)사항의하나이든낡은건물은완전히관청의손에서 민간으로 낙적하게되엿는데 공매의기일은 아직정하지아니 하엿스나 될수잇는대로속히하리라고하며 건물의불하가기지는 전부칠백평에 가까워 그중의백여평은 최근의주통(義州通)전매국 공장에 린접해잇는시내주교정(舟橋町)로지중개업이등상회(伊藤商會)의 소유토지이 일천여평과 교환하엿다고한다 이교환한 의주통토지에는 아푸로 전매국공장을 확장할모양이다불하될건물은 낡고 씀모이적은즉 누가 불하를받든지간에 필경재건축될 모양이니 이건물이종로거리에서 아주업서지고 말운명의날도 멀지안흘세음이다

討伐當한士兵隊 死體百餘遺棄潰走

【哈爾賓十四日發聯合】 빈북선유롱현(賓北綏稜縣)동방사『키로』되는지점에서십삼일정오경일본토벌대는약이백명의 토병단과 조우하야격전한끄테 이를물리첫는데 토병단은 시체약백여개를버리고도망하엿다 토벌대의 손해는능야뢰(能野瀨)군조 소봉(小峰)오장이하 네명이전사하엿다

大部隊土兵에 六名이死傷

討伐軍側의被害狀況 楡樹縣과東寧方面兩處서

【吉林十四日發聯合】 매발(梅鉢)부대는십사일오전 유수현사하성(楡樹縣四河城)동방일킈로되는곳에서 약이백여명의 토병과격전중인데 십사일오전 여덟시까지에의하면 매발부대의 손해는다음과갓다

戰死者 梅鉢中尉、藤田少尉、有吉等上兵 重傷者 荻原、杉原兩一等兵其他輕傷者數名

【哈爾賓十四日發聯合】 강도(岡島)수비대 청목(青木)○대○이천야(淺野)상등병이하 수명은지난십일오전 아홉시삼십분 동녕(東寧)방면에서 양말(糧秣)을 수송하든도중 약백명가량의 토병을만나서 수시간동안격전한후이를격퇴하엿는데 전긔청목○대의손해는다음과갓다

▲戰死上等兵 淺野要次郞 同 前田弘二 ▲負傷一等兵 渡邊精吉 同 村上寅太郞

安奉線에서 貨物車顚覆

【安東十四日發聯合】 십사일오후한시반경 계관산(鷄冠山)발제사백오호 화물렬차가 하마당련산관(下馬塘連山關)사이에서 탈선하야 전복되앗다 이로인하야오전십일시 안동역(安東驛)발봉천행(奉天行)『히까리』는 련산관에서 오후오시삼분 안동착부산행『히까리』는 교두(橋頭)역에서압호로 더가지를 못하고잇든중안동역에서는 위험 부산행렬차를 만들어 오후오시 정시각에 특발하엿다 탈선현장은 파손이 심하야 복구시킬가망이 업다하며 원인은 지금조사중이라한다

昨朝市內檢索

조선신궁진좌 십주년제일인 십오일을압두고 십사일새벽 부내각경찰서에서는 서원을 총동원하야 관내에잇는 려관 하숙옥 음식점 유곽등의 일제검색을한결과 각서모다 별큰소득은 업고 다만신원이 미상한사람 십여명을 오류명식데려다가 간단히취조한후 모다 석방하엿다는데 경찰당국이 이지음 하로걸러큼 일제검색을 더욱엄중히하게되는것은수일전에 상해(上海)일본총령사관경찰로부터 그간침체하여잇든 ××운동이 근래이운동의 정예분자인 최석순(崔錫淳)등을중심으로 맹렬히활동을 시작한것을보아 혹시조선내지의 어떤분자와 비밀련락을 가지고잇는지도 알수업다는 정보를받은관계로 만일을 염려하야 로서아중국등 해외로부터 조선안에들어와잇는 소위요시찰인을 날카로운눈으로 감시하는것이라한다

本社見學─대구(大邱)계성학교축구부일행 십오명은감독김영제(金永濟)씨인솔아래 십삼일본사를 견학하엿다 ◇신의주(新義州)고등보통학교 럭비부일행 이십명은 감독리일성(李一成)씨 인솔로 십사일본사를 견학하엿다

今日의運動

▲軟式庭球‖神競軟式專門校對抗戰第二日午後二時 京城運動場『코—트』
▲럭비蹴球‖神競中等部準決勝京師對大邱商業(午後一時) 養正對新義州高普(午後二時半)京城運動場
▲野球‖神競中等校野球 東萊高普對京商(午後三時)◇一般部野球 兼二浦對慶南(正午)以上京城運動場
▲運動會‖徽文公普校 午前九時 神武門外運動場

朝鮮體育會 創立十六週年 綜合競技大會
─陸上、庭球、蹴球、野球、籠球、力技、씨름、武道、럭비等九種目─
申請은 十七日까지 鍾路一丁目 朝鮮體育會로

運動競技

團體卓球戰 海州高普優勝

松高決勝에惜敗

京城帝大學友會卓球部主催의 第八回全朝鮮學生卓球大會團體戰은 十四日午後零時半부터 城大體育部卓球室에서行한바 다음의戰績으로 海州高普가優勝하엿다

【第一回戰】(昨日夕刊所載) 京城商業…棄權…崇仁商業 崇仁商業…棄權…法學專門

【第二回戰】 第一高普3…2仁川商業 大邱農林3…2京畿商業 海州高普3…0京城商業 平壤崇商3…0新義高普 第一高普3…0京城醫專 松都高普3…0大邱農林

【準決勝】 海州高普3…0平壤崇商 松都高普3…1第一高普

【決勝戰】 【海州高普】勝 【松都高普】

○朴○植3……1許 準×
○李俊性3……0崔模恒×
×韓淵鎬0……3洪性範○
×金容珏2……3金載變○
○張鳳榮3……0林順來×

綜合競技準備會

朝鮮體育會主催의 第十六回綜合競技大會準備委員會는 十四日午後四時半부터 百合園에서열린바 各部門의 任員選定과 其他重要事項을討議한後 同六時頃에散會하엿다한다

醫專對法專卓球經過

法專對醫專의第六回定期卓球戰은 지난十二日午後一時부터 法專코트에서三回戰을進行하야 結局十一對八로法專이勝捷하엿다

對滿洲鐵道戰에 朝鮮鐵道軍勝捷

滿洲國鐵路總局對朝鮮鐵道對抗籠球戰은 十四日午後四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리엇는데 結局三十一點對二十八點으로 朝鮮鐵道軍勝捷하엿다

專門對抗蹴球 藥專軍一勝

神競軟式庭球 專門學校對抗戰第一日은 十四日 午後四時부터 京城코─트에서 開始된바 다음과가튼 戰績으로 藥專軍이 勝捷하엿스며 第二日은 今十五日 午後二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續行할터이라한다

【藥專】勝 【醫專】
○(許鍾根 成翼用)4…3(曾我 垣內)×
○(岡田 房善均)4…3(北原 大塚)×
○(高興洙 李綸海)4…2(越部 孫泳洙)×

中等硬式庭球 嚴在裕優勝

神競軟式庭球中等部單式戰은 十四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코─트』에서 擧行한바 京師의 嚴在裕君이 優勝하엿다

【準決勝戰】
李文형(京師)661─436前田(京師)
嚴在裕(京師)66─10藤本(京師)
朴濟根(京師)726─561山元(京師)
嚴在裕(京師)66─01李文형(京師)

【決勝戰】
嚴在裕(66─41)朴濟根×

神競京畿道 代表選手決定

神競에出場하고 各道對抗陸上競技選手는다음과 가티決定하엿다한다

▲監督‖日對 ▲主將‖崔仁浩 ▲選手‖戶嶋 中出 越田 金鏞元 安榮權 李英敏 金道鉉 金周龍 李鉉鎬 徐見世 李鐵弘 李泰過 黑原 島崎 桐木 鈴木 安泳載

大田14A 平鐵1

神競各道對抗野球第一日은 大田鐵道對平壤鐵道戰은 十四日午後零時二十分부터平鐵先攻으로開始한바 十四A對一로 大田勝 ◇投捕‥平鐵(山本、韓點龍)大田(白宮、酒野)

(平鐵)000100000─1
(大田)60152000A─14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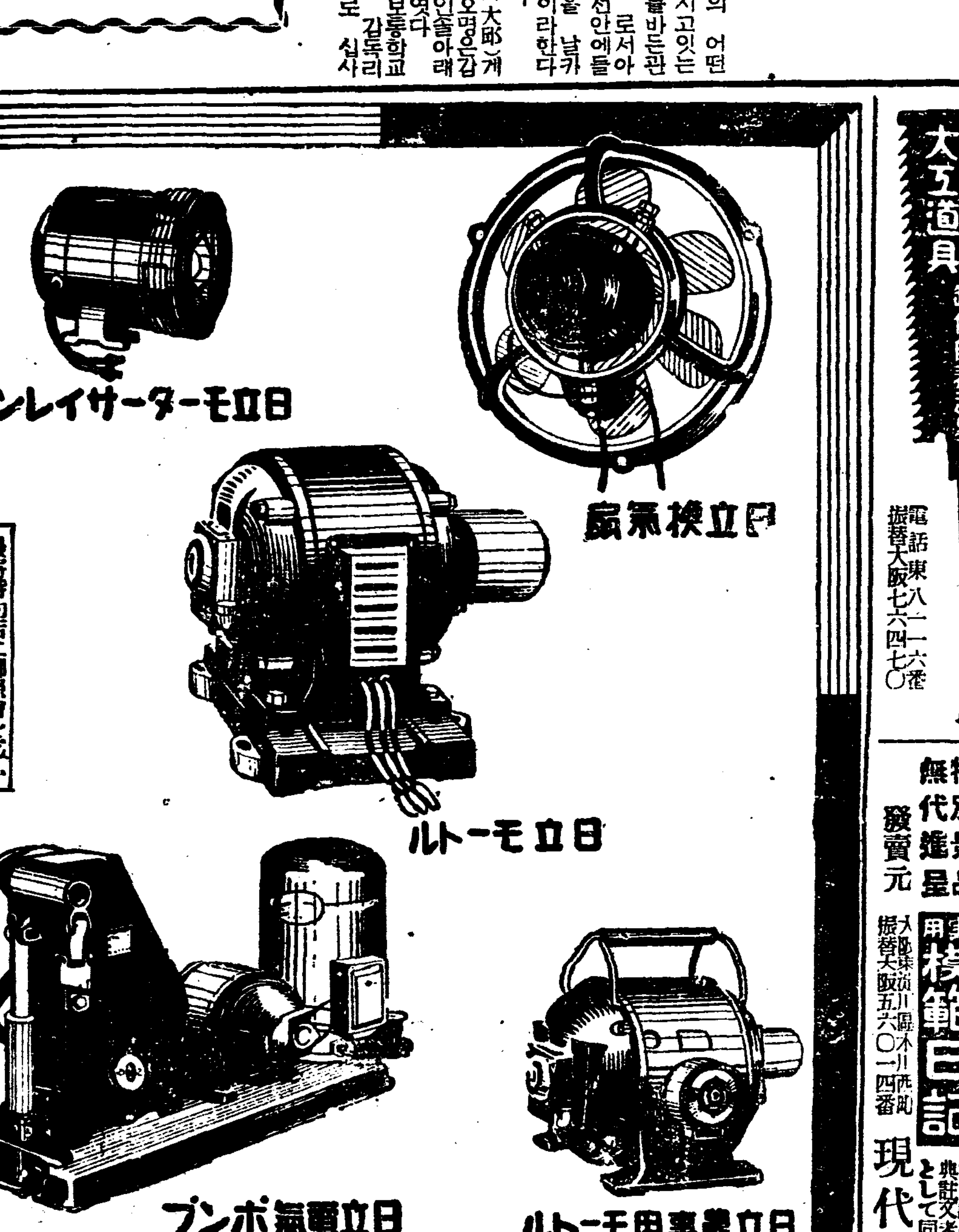
平實4 咸北0

神競野球第一日 平壤實業對咸北戰은午後三時九分부터 平實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四對零으로 平實勝(閉戰四十四分)

平實 000002200─4
咸北 000000000─0

道對抗庭球日程變更

軟式庭球各道對抗戰은 十九日午前九時부터 京城運動場코─트에서 行하기로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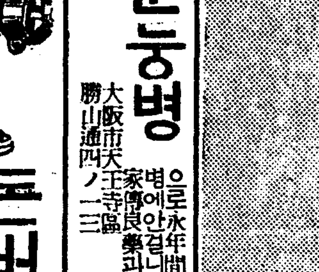
最寄特約店に御照會を乞ふ
日立製作所 東京・丸ノ內 大阪 福岡 大連 市西區土佐堀通一ノ一 市博多片土居町四一 市紀伊町八五 名古屋市中區南大津町一ノ十一 札幌市南二條西三十丁目三一九 京城府黃金町二ノ一九五

銘製造卸 大工道具 卸値段表進呈 大阪市東區神崎町四一 武村製作所 電話東八一六番 振替大阪七六四七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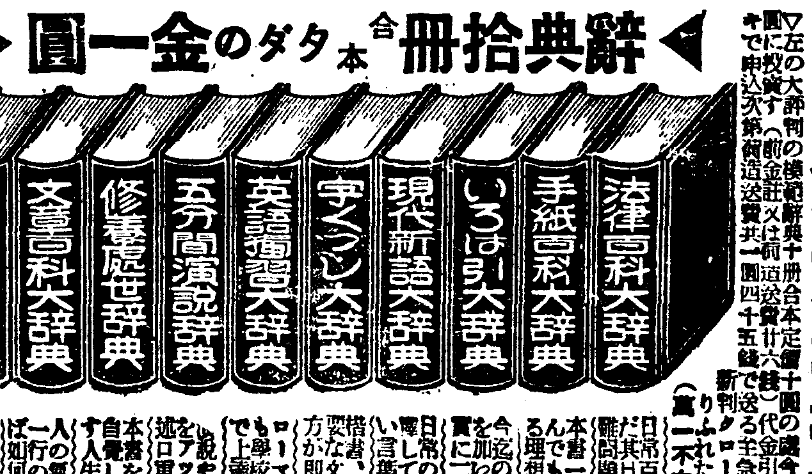
秋冬 帽子カタログ進呈 滿鮮向帽子品揃 大阪市北區空心町一丁目 河村善商店 (限店章捺印送呈함)

간질 잘어단기고瞞病으로困難한분에 効能本位의良藥잇다빨이治療하고싶흔분은申込하라良藥과全快實例書를일어준다 大阪市浪速區役所北通 大福堂

치질 肛門病科 東光醫院 (藥物治療臨問) 大田本町二丁目 (電話四九番) 桐東銃


新型各種 가다로구進呈 돈버리大王 리도一式 膨膨機 五合의米와옥수수가 八升의菓子가된다 製菓法傳授 大阪市東淀川區本庄西通一 兒島製作所 電話北五二九八

문둥병 으로永年間困難한분、又는近親者가걸린듯한병에안걸니며又는日本最古의有効本位의權威家傳良藥과療法잇습、內容說明書無料進呈함 大阪市天王寺區勝山通四ノ一三 コトブキ園

辭典拾冊合本 タダの金一圓


▼合本ですから一冊分賣は出來ません 特別景品 無代進呈 實用模範日記 發賣元 現代出版社 大阪市東淀川區本庄西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殘本處分大投賣斷行

淸凉한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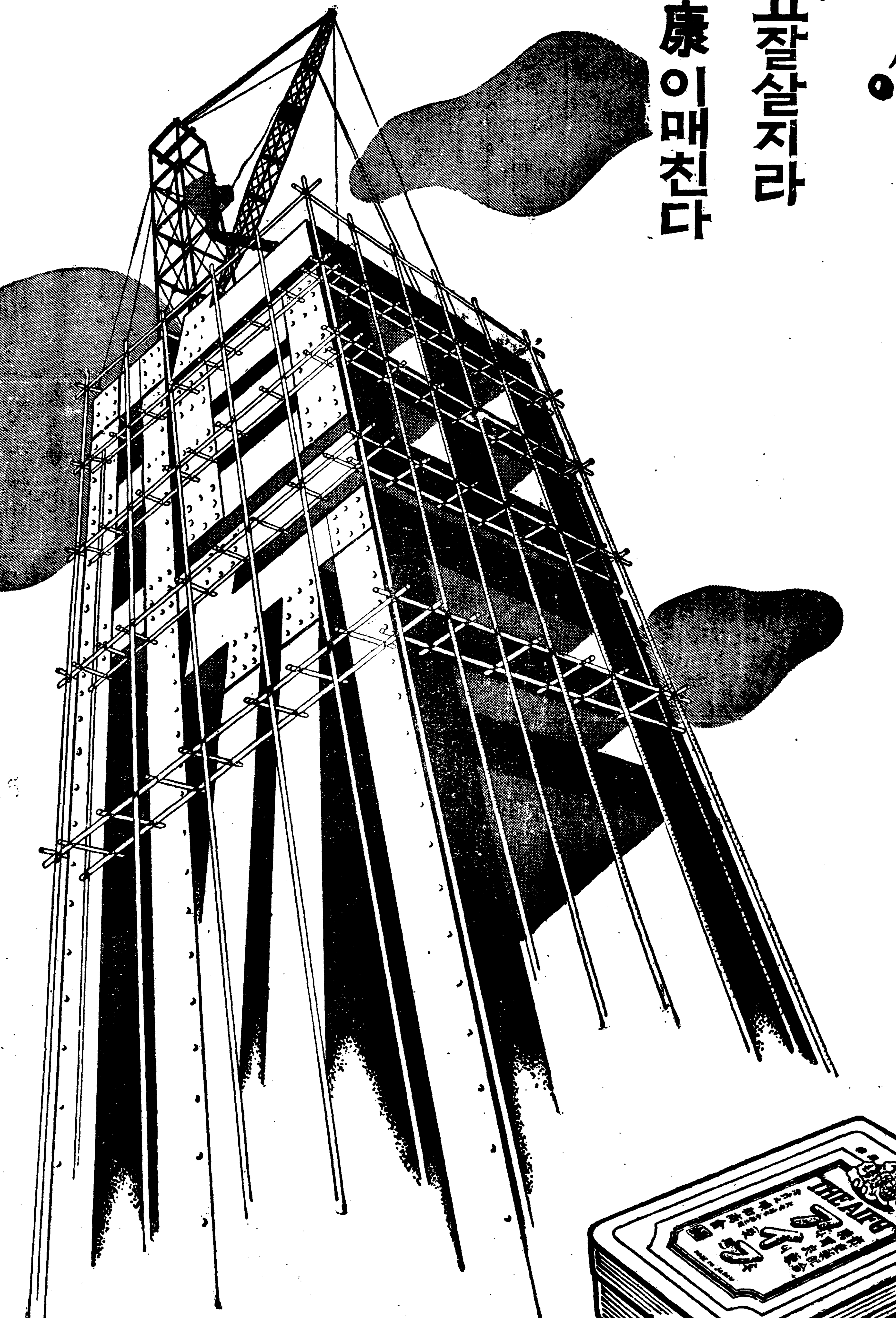
豐穰한가을이때에잘먹고잘살지라

頑健한胃腸에만오직健康이매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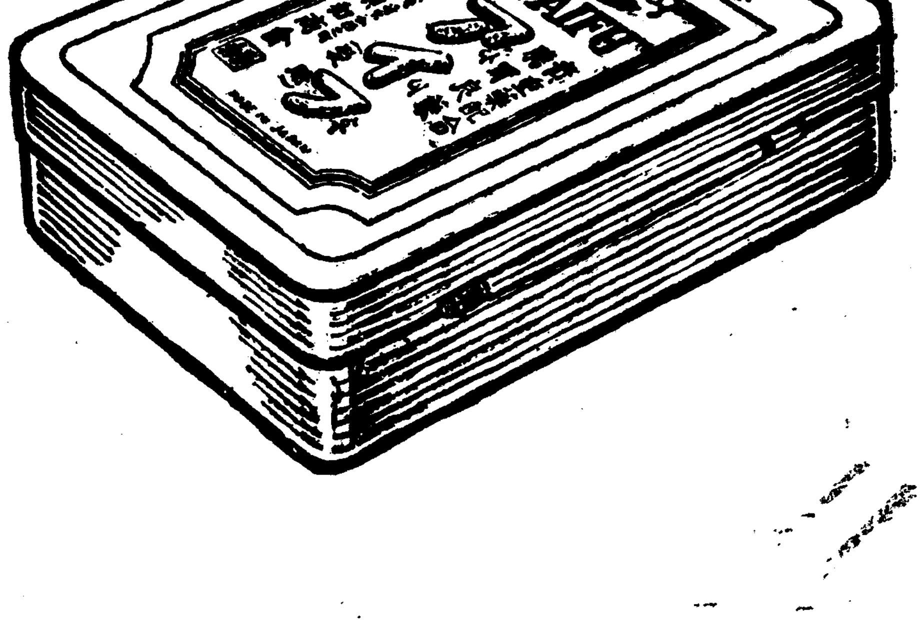
飮食을 만히 먹는것도 살이 잘 찌는것도 胃腸의 强弱이 第一問題올시다 飮食을 만히 먹는다해서 반드시 살찐다고도 할수업는것이다 만일 당신의 胃腸에 障碍가잇다하면 모처럼 攝取한 榮養分도 吸收되지안코 無爲하게 排泄될뿐입니다 過食偏食의 結果는 오히려 症狀을 惡化식히는것입니다 먹은것을 容易하게 消化吸收를식혀서 身體의 養分을만드러 내려고함에 잇서서는 强健한 胃腸을 必要로 하는것이올시다 酷暑에 疲勞를바든 당신의 胃腸에 만흔收穫을 期待키는 어려운일입니다 이 秋季의 工作은 于先 衰弱을 整備하며 頑健한 胃腸을 再建하는데 잇는것이올시다 頑健한 胃腸이야말노 潑剌한健康과 光輝스러운 幸福을 約束할것이라고 밋습니다 强壯한 再建의工作에는 꼭 아이후한罐을 服用하시오

治療藥**아이후**는 胃腸粘膜의異常을整齊하며 病衰細胞에活力을 賦與하야 全機能의 健全한 活動을 助長식히는 作用이 顯著함으로써 ◉食慾不進 가슴답답 嘔逆나고 트림나며 ◉恒常泄瀉와 軟便으로서 便에는 粘液、血液、膿汁이 석기고 ◉배가불느고 꾸르럭 거리며 放屁만코 下腹痛나며 ◉滋養物은 攝取해도 살로안가고 身體衰弱하며 ◉元氣가 衰하고 顏色이不好 神經過敏으로 神經質이되며 ◉술과 不消化物을 조금만 먹어도 곳 泄瀉腹痛나는 等의 諸症을 好轉식혀 明朗한 健康에로 引導합니다

慢性胃腸病には(에) アイフ(아이후)



胃腸再建工作에는먼저此一罐!



▶全鮮到處有名한藥店에잇슴◀

藥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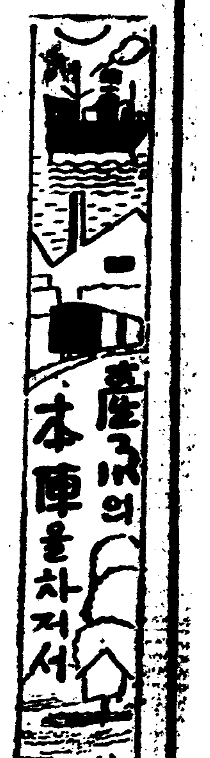
胃와腸의兩病에는アイフ(粉末)

三服入 二十錢	十七日分 三圓
四日分 七十五錢	四十五日分 七圓
八日分 一圓五十錢	特製十一日分 五圓

胃腸病專門에는健胃アイフ(錠劑)

七十五錠入 五十錢	三百四十錠入 二圓
百六十錠入 一圓	千錠入 五圓

大阪市東區淸水谷西之町
發賣本舖 **順和商會**
振替大阪三四五五番 電話(東)五〇〇〇・五〇〇二・五〇〇三番
東京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番地 振替東京六二八八番 電話小石川(四)〇一〇
大連 大連市山縣通 丁目 振替大連三七五番 電話七六〇八番



(二十一)

「共販」以外에는 販賣할方途斷無

生産의三分의一을共同販賣

等級鑑別로우선不利

以上으로써 棉作에對한 大綱의 說明을 끗치엇스니 이제로부터는 生産者가 棉을 收穫한後의 일을 적어보기로하자.

×

今年 收穫豫想은 旣述과가티 九月十日 現在 調査가 陸地棉 一億五千萬斤、在來棉 四千五百萬斤 合計 一億九千八百萬斤이오 九年實收는 一億五千三百二萬四千四百五十七斤인바 九年産 棉花를 九年九月以降 十年三月末日에 至한동안에 京畿、忠南北、全南北、慶南北、黃海、平南、江原의十個道에서 共同販賣한것이

△實棉 五千四百七十七萬二千四百十三斤 그價額 九百三十三萬七千八百七十五圓(百斤當 平均 十七圓五十錢)

△繰綿 四千九百四斤 그價額 二千五百六十七圓(百斤當 平均 五十二圓三十五錢)

으로서 이것을 繰綿으로 全部 換算하면 一千六百四十三萬六千六百二十七斤이되고 實棉으로 全部換算하면 五千四百七十八萬七千斤이 될으로 九年總生産高 實棉一億五千三百二萬斤에 比하야 三分一以上이 共同販賣한것이다.

×

共同販賣의 價額을 보면 百斤當 平均價格에잇서서 實棉一等品은 慶南의 十九圓七十錢이 最高오 五等品은 忠南의 七圓十錢이 最低이엇스며 繰綿一等品은 忠南 五十八圓四十一錢이 最高오 五等品은 京畿 二十七圓〇八錢이 最低이다.

이제 棉花共販 數量과 價額의 累年比較를 示하면如左하다

共同販賣累年表

年次	實棉 數量(斤)	實棉 價格(圓)	實棉 百斤平均價格(圓)	繰綿 數量(斤)	繰綿 價格(圓)	繰綿 百斤平均價格(圓)
大正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十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昭和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八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九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그러면 棉花의 共同販賣의實際는 어떠한가? 먼저 全南의制度를 들어보면 全南은大正二年부터 共同販賣를 開始하얏는데 當時의 目標는 生産物을 合理的으로 販賣하는 同時에 販賣보다는 全部를買上하야 種子를得하는 두가지 目的이잇섯는데 지금와서는合理的으로 販賣하는目的만이共販의 全部이라한다。그런데大正六年에와서 競爭入札에 依하야 販賣하고 昭和七年까지 全南서만 繼續하얏는데 競爭入札은 처음은 効果的이엇스나 나중에는 投機的이되어弊害가 만흠으로 昭和八年부터 다시 指定販賣로 還元하야 全朝鮮各道가 全南만 例外이던 것이 모다 指定販賣로 되어 今日에 至하얏다한다。

그리하야 全南에만 百五十個所의 共同販賣所를 各郡 農會에서 設置하야 生産者인 農民으로부터 사드리는터인데이 共販의 法的依據는 生産者에게 共販에가서만 팔고 다른데가서 팔면 안된다는 明文은 업스나 間接的으로「棉을 買하는者는 共同販賣所 以外의곳에서 사면 안된다」는各道의 道令이잇기때문에 生産者로서는 共同販賣所로 가지고가는以外에 팔道理가 업는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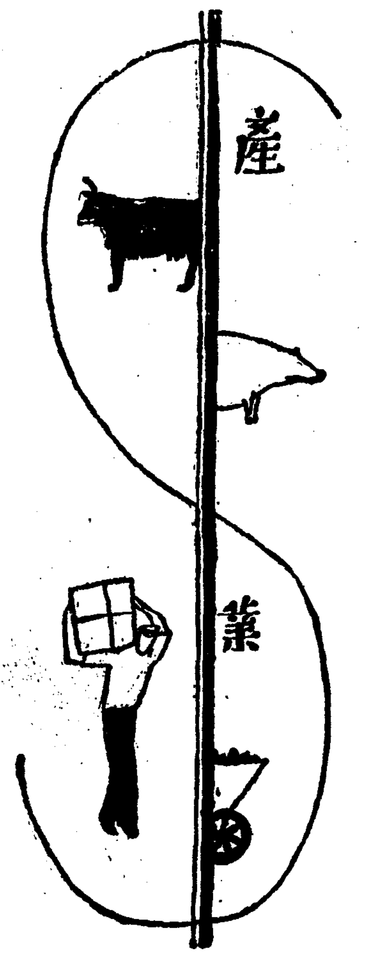
그다음 共販의等級은 어떠한가? 陸地棉이나 在來棉이나各 五等級으로 난후어잇는데 陸地棉 一等品 이라것은 實棉으로 繰綿할때에 米棉「스트릿도·밋드링」과 同一格을 말함이오 二等品은 一等品에比하야 九五%三 等品은 八五% 四等品은 七〇%、五等品은 五〇%의것이오 在來棉도 그標準은「스트릿도·밋드링」으로하되 四、三%의 格下로되어잇다。(以上은 十年産棉에도 그대로 前年踏襲)

×

그런데 農民이 棉을 共同販賣所로 팔러오면 農會職員이 그 等級을 定하는데 그 等級鑑別法이란 눈으로 보아서定하는外에는 다른 方法이 업다한다 그리하야 빗(色)과윤(光澤)과 雜物이 석기고 안석기고 만코 적은것等 세가지를 보아서 이것을 一等이라 저것은 二等이라 한다는데 이러케해버리면 生産者로서 억울한 생각이 잇드래도 말한마듸할수업시 그대로 파는수밧게업는바 共販에 從事하는 職員들이 모다 善良하고 職務에 忠實하며 農民에게 害할 마음이 업는 조선사람들이라할지라도 사람의 눈 이란 제 아무리 보는것이 다르고 道와道、郡과郡、面과面、이販賣所、저販賣所마다 다를 것임은 勿論인데다가 共販所員이라고 모다 善人만 잇스란法이업스니 그中에는 挾雜輩이 잇슬지도 모르는터로 不正한 等級鑑別이업다라도 잇슬수잇스니 우선 等級鑑別에잇서 別方法이 눈으로 보아서 할뿐이란 點으로 生産者인 農民에게 不利한 境遇가 만히잇슬 것이며 今後도 別方法이 업다면 不利가 마흘것이다。

特派員 李健赫

◇寫眞은 棉共販所等級鑑別及計量狀況



硫安의供給不足 魚肥施用을奬勵

農會에서魚肥를大量으로購入

農林局의對策決定

硫安의 需給不足은 不可避하게 되어 本肥料年度에잇서서도 朝鮮內에서 狂的市勢의 出現이豫期되고 잇스는바 總督府農林局에서는 이對處策으로 外安輸入에對하야 日本內地를 督勵하는同時에 이와 倂行하야 朝鮮內에서 거이消費되지안는 魚肥를積極的으로 朝鮮內에서 使用식힐方針을決定하고 十二日 朝鮮農會와 農産課肥料係及 水産課魚肥係가 右에 關한 準備協議를 하얏다 이方法으로서는 農會에서實施하고잇는 調合、配合肥料에右魚肥를 大量購入할 豫定으로 朝鮮農會에서는 關係技師가 咸南北道에 出張하야 各道水産組合과 右에 關한 協定을 하기로되엇다 豫定數量 그他는 未定이나 相當히 積極的 購入實施할 意向이다 그리고 魚肥는 窒素單價로는 硫安에 比하야 高價이나 肥効率로는 硫安의 一、七倍이어서 多收穫으로 目標를 轉한 朝鮮內에서는 米價高가 維持되는限 硫安施肥에 比하야 有望하다고 한다

硫安狂騰으로 鰮粕需要旺盛

硫安의 狂騰으로 朝鮮産鰮粕의 販路는 俄然 好轉하얏다 即 硫安의 高騰은 有機質肥料로서 有力한 大羽鰮粕의 大量需要를 喚起하야 今年은 九月末 벌서 七十萬俵에 達하는 豊漁에도 不拘하고 賣行은 順調롭고 三菱의 市場操作도잇서서 市價는 三圓六十錢을 唱하고잇다 그리고 朝鮮內에서도 魚肥需要는 俄然旺盛하여지고 特히 多收穫目標의 南朝鮮에서는 肥効率의 關係로 增大하야 農會의 配合事業에서도 魚肥에着眼하고잇는 狀況이다 그러나 이反面 粉碎밀製遺는 輸出不振으로 이方面의 需要는 減少를 豫想된다

水産團體統制

不良貸出로困難

總督府 水産課에서는 벌서부터 朝鮮水産團體의 統制를 目的으로 不良漁組의 整理를하는 一方 이에 伴한 漁業組合令의 制定을 急히하고잇스나 兩者모다 도무 進捗치안허 漁業組合令과 如한것은 官房審議室에 廻付된 以來 數個月을 經過하는 今日에 至하야도 審議에 着手되지안코 그대로잇슬뿐아니라 漁組의 不良貸付도如意히 回收되지안허 目下 모처럼 統制計畫도 進展을 을보지못하고잇다

水産專門漁港 特別管理法

目下水産課에서立案

朝鮮水産業의 改良發達을 圖할目的으로總督府에서는 劃期的試驗으로 淸津에 水産專門漁港을 新設하얏는바 總督府의 意向으로서는 將來 漸次이를增設하고 이 管理方法에 關한 特別法令을 制定코저 目下 水産課에서 右水産專門漁港 特別管理法案을 立案中임으로 不遠 府令으로公布될터인데 右法令의 中心點은 水産專門漁港敷地內에는 他産業工場은 絶對로 設置를 許可치 안코 水産關係의 工場을 設置하야써 利用開發에 供하려는 것이다

淸津沿海鰮漁 依然히活況

一日一隻二千樽漁獲

淸津沿海의 鰮漁業은 依然 活況을 呈하야 現在操業船卄數隻에 達하는데 此等漁船의 漁獲高는 (九月廿四日부터十月一日까지) 一日一隻平均二千樽 最高賣로

躍進浦項의자랑 慶北水産共進會

萬般準備는着着進行

【浦項】 慶北의 玄關이요 東海岸의 漁業中心地인 新興都市 大浦項을 자랑할 慶北水産共進會는 關係當局者의 猛然한 活動으로 그 會館의 竣工을 보게 되엇는데 지난五日부터 慶北道內 十三漁業組合職員이 總出動하야 內外各地에서 殺到한 數萬의 出品物陳列에 大奔忙中이라 하며 會館에 나붓기는 萬國旗의 기ㅅ발과 市街의 거리거리에서잇는 祝賀塔은 躍進하는 浦項을 祝福하는듯 사람의 眼目을 끄을고잇는바 그中에도 本會別館인 海底館은 바다의신비를 如實히 드러내이고잇다한다 (寫眞은 慶北水産共進會全景)

豊川正租檢查協議會

【豊川】 五日午前十一時에 穀物檢査所 豊川出張所長 柳景春氏가 豊川地方地主를 召集하여 今年度 去一日부터 實施되는 正租檢査에 對한 協議會를 開催하엿는데 當日 協議事項은 如左하다

一、正租施行의目的 二、搬出檢查 三、希望檢査 四、檢査의請求 五、檢査手數料 五、重量及包裝 七、檢査等級 八、標識 九、品種의標記 十、重量及包裝의特別取扱 十一、特別取扱品의檢查手數料

火賊 林巨正 (203)

洪碧初 作
安碩柱 畫

청석골 五의十四

여러두령이 모히는곳을 도중 상하가 입에들 닉은대로 도회령이라고 불르지만 대령이 열두간이든 청석골 도회령과는견주어 말할수업는 간반통 삼간 방하나인데 그나마 꺽정이가따로 거처하느라고 꿈인방을 도회령으로 겸하야 쓰게 되엇섯다 청석골 도회령에서 위의들을 가추고 안질때와 달러서 일을 의론 하다가 잡담을섯기도하고 안저잇기가 실호면 비스듬이 눕기도하얏다 면새 도회령이란곳에 여러두령이 모혀서 혹 눕고 혹 안저 잡담들하고 잇는중에 황천왕동이가들어와다 누어잇든 사람이분분히일어안지며 여러사람이 각인각색으로 인사들하얏다

「잘 다녀왓나 이리 와서 안께 자네가 조금만 더늣게 안오면 우리가 자네게루 제진햇슬지 몰으네」

길은오가는 수다스럽고

「애쓰기를 알앗드니 속히 왓네」

방유복이는 말수가 적고

「서울갓다오신 회보는 이두령 말슴으루 대강을 들엇지만 자세한 이애기를 들으려구 오시기를 기다리구들잇소」

서림이의 말은 요령이 잇고

「이번에두 대장형님을 모뢰시구오구 혼자와단말인가」

배돌석이의말은 되바라지고

「밤길좀 걸엇다구 해가 똥구녁까지 치밀두룩 잔단말이요」

길막봉이는 말이 우직하고

「오는길루 우리 입분 아주머니를 못살게하느라구 밤을새우셧겟구려」

곽오주는 입이 막우난 창구녕이엇다 인사수작들이 끗난뒤에 리봉학이가 황천왕동이를 보고

「올때 대장 형님을 못보앗구 왓나구혜지」

하고 물어서 황천왕동이가

「보앗구 더할말두 업구 눈두룩 기다리구잇기가 실키에 그대루 와버렷소」

하고 대답하니 좌중에서 엇지하야 뫼시고자지 안햇느냐고 못는사람도 잇고 가치오시자고 더졸라보지안코 혼자 달어왓다고 책망하는사람도 잇고 또안보입고 와서 화를 내시지안켓느냐고 념려하는사람도 잇셧다 황텬왕동이는 여러사람이괴상히 녀기도록 한참동안이나입을 봉하고 안젓다가 한번좌중을 돌라보고나서

「지금 내생각에는 우리 대장이라이가 꽉 오장이 박힌것 가튼데 여러분은 엇더케 생각하실는지 이번에 내가 보구두구온것을 조금두 숨기지 안쿠 죄다 이애기할테니 여러분 생각들좀 해보시우」

허두를 노코 이야기를 시작하얏다 꺽정이가 기생년을 끼고 방에 들어안저서 내다보지도안코 방에 들어가서 절을하야도 눈도 거들떠보지안튼것과 한온이와 시비를 차리는데 꺽정이가 한온이 편을 들어서 빰치고 떠다밧질른것과 꺽정이가 한온이와가리 기생방에 놀려가서 한온이만 돌려 보내고 자기는 자고오지아니한것과 꺽정이가 기생방에 가기전에 홀을 라서 가치오거나 그러치안호면 어느날 오겟다고 분명히 날짜를 말하야 달라고 졸르쓰 내가 너어듬에게 매여 지내는 사람이냐 소리 질르고 도중에서 다 서울로 올라가게되거나 그러치안호면 사방으로 허터지게될는지 몰은다고 말할속 갈놉흔 가거라 소리질르든것을 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로밥이의 이야기와 한온이의 수작을옮기어서 여러사람에게 들려주엇다

「그것 보지요 생상에는 영웅이 더 넘러라구 내 말하지 안씁되까」

서림이가 먼저 한마듸하고

「대장형님이 기집에 끌아죽엇드면 서종사는 펄펄 뛰구 조와할뻔햇소」

곽오주가 뒤바더 한마듸하고

「우리대장이 기집실에두 대장업세」

늙은오가도 한마듸하고

「사생동고하자구 맹세하구 갈놈은 누구며 가랄놈은 누구야」

배돌석이도 한마듸하고

「시굴안해 한분에 서울안해 셋이면 대장형님두 배두령형님과가티 사취장가까지 드신셈이군」

길막봉이도 한마듸하야 이사람저사람이 다들 한마듸식 말하는데 리봉학이와 방유복이는 입들을 다물고 말참녜를 하지 아니하얏다

라이온「煉齒磨」

貴女의이를
아름답게하는
ライオン齒磨。

貴女의이에서
虫齒를업시하는
ライオン齒磨。

이의感觸을조케하고
닥는맛도조흔
ライオン齒磨。

本舖 株式會社 小林商店

IOC—113

頭痛이잘낫는名藥

有名한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ノーシン 노ー신

●머리가 갈러지는것가티 몹시 아플때!!
●바늘로 쑤시는것가티 끔치가 아플때!!
그리고 머리가 아프지안트래도 過度한讀書로 睡眠이 不足하거나 머리가무겁고 흐리터분할때나
술을過飮하고 餘毒으로 氣分이조치못할때나 언제든지잘듯는名藥입니다 만일頭痛으로
괴롭게보는때가게시거든잇지마시고노ー신을꼭한봉만잡수어보십시오
언제머리를 아랏든가? 하는듯시깁을 가질뿐아니라 아조머리가 明快해집니다 이러케기묘하게 잘듯는것이노ー신의 가장 자랑할만한 特徵입니다 平時에 服用하신대도 決코 害롭지는안사오니 安心하옵시고잡수시요 더욱 家庭常備藥品으로 언제나떨어지지못할뿐아니라 이러한 良藥은 아못조록 우리同胞에게 만히宣傳하야서 頭痛으로 苦生하시는분이게시거든 꼭이 노ー신을服用하도록 가르치시요 노ー신은 어느곳을勿論하고 各藥店에잇습니다 요사이노ー신과 비슷한 藥品이만히나와사오니 잘못하면속히기쉽습니다 사실때 登錄商標帽子印잇는ノーシン에 잘注意하십시요.

藥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卄八包入 一圓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精力回復 元氣百倍 オセロ(오세로)로 非常時突破
￥1.20 ￥2.00 ￥3.50 ￥5.00
各種藥店에잇슴

朝鮮日報社 京城販賣所 電本一五九七

本格的探偵映畫의出現! 十月十五日부터超特別大興行 M、G、M超特作全發聲日本版 에도가세로우인監督 殺人魔X 로바ー드몬도고메리ー氏主演 안개깁흔倫敦의밤! 警官만노리는奇怪한殺人事件이續發한다不敵의犯人은X氏라고부르며殺人傑作을各新聞에發表함으로當局은狼狽하나依然히犯人은오리무중이다 警官으로假裝하고敢然X氏에挑戰하는사람은……? M、G、M特作全發聲日本版 駄法螺男爵 잭크·바ー루ー氏大熱演 짐미·듀란드氏 엉터리업는작자가男爵敎授가되여 美人만이모인女學校에가서가진영터리를부리는大騷動爆笑篇 大都映畫超特作時代劇 旋風의荒鷲 大江秀夫監督 畢秀人氏 琴路美津子主演 貫鐵洞 電話光三九五 優美館

當る十五日特別大公開 朝鮮神宮御鎭座十週年 京城神社秋季祭禮 紀念奉祝(晝夜三回興行) 本邦映畫界にヒットした本秋最高の絶對的强力プロ!! 新興キネマ本年度爆供 千惠プロ超弩級明朗拱笑篇 原作監督 伊丹萬作 塚越システム・錄音 オールトーキー 氣まぐれ冠者 片岡千惠藏主演 市川春代、田村邦男特別出演 瀨川路三郎、尾上華丈、香川良介助演 皆樣お待ち兼ねの久方振りに千惠藏が爆笑、拱拱笑、大亂鬪の巨篇 新興キネマ東京撮影所特作 高田プロ、新興合同製作 內務省、鐵道省御後援 所載 日報報知 原作 竹田敏彦 脚色 西鐵平 監督 田中重雄 オールサウンド 鐵路 高田稔 主演 山縣直代、霧立のぼる、松本泰輔助演 主人公に勇壯果敢な青年を〇し來りこれに親友、戀人、妹などを配して友情、母性愛を深刻に物語るメロドラマである 永樂町 電本三五一 中央館

十二日より秋季特別大興行 松竹映畫全鮮封切場 見よ!!今秋最高最大の傑作名畫の大饗宴を注意!!今週は超特別興行なれば 勝手乍らプレ券御遠慮下さい 上映順 一、蒲田超特作サウンド版 原作 塚本靑 脚色 池田忠二 監督 五所平之助 主演 高杉早苗 佐分利信 △あこがれ 『さちわ』發表沈默を續けて居た巨匠平之助が再び南風薰るロマンチック伊豆半島の轉轉と住み移る女をリアリスティックに描く『伊豆の踊子』以來五所平監督が藝術の秋に贈る畢生の傑作 二、下加茂超大作オールトーキー 原作 三上於菟吉 脚色監督 衣笠貞之助 主演 林長二郎二役大熱演 △雪之丞變化 第二篇 雪之丞の復讐美事になるか?女賊お初の俠艶の魔手は如何に搦げられ街の俠兒闇太郎の活躍は!! 前篇雪之丞變化で完全に映畫界をノックアウトした衣笠、長二郎の絶對コンビが更に意氣昇天の勢にて製作されし絢爛豪華待望篇!! 洋畫專門 浪花館